

# ‘도루왕’ 박찬호, 열심히 뛰어 호랑이 자존심 지켰다



박찬호



열심히 뛴 박찬호가 KIA 타이거즈의 유일한 타이틀 홀더로 시상대에 오른다.

KIA는 7·8일 KT 위즈와의 홈 2연전을 끝으로

2022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김중국 감독과 장정석 단장으로 새로운 틀을 구성한 시즌, FA 최대어 나성범을 영입하고 '에이스' 양현종도 복귀한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감 가득한 5위 싸움을 한 것은 아쉽다.

부족했던 팀 성적, 개인 성적에서도 눈길 끄는 타이틀 경쟁은 펼쳐지지 않았다. 그나마 박찬호가 자신의 개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도루왕'에 자리하면서 자존심을 지킬 전망이다.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도루 2개를 수확하면서 데뷔 후 첫 40도루 고지에 올랐다. 이날 도루로 2위 키움 김해성과의 격차를 6개로 벌인 박찬호는 5일 LG전에서 사실상 도루왕을 확정했다.

박찬호는 이날 3회말 1사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2루에 이어 3루 베이스까지 연달아 홈치면서 42도루를 만들었다.

2019년도 도루왕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박찬호의 두 번째 시상식. 도루 개수는 늘었지만 마음은 답답

데뷔 후 첫 40도루 고지 올라

KIA의 유일한 타이틀 홀더

“중심타선이 좋아 기회 많았다”

했다.

박찬호는 2019년에는 39차례 베이스를 홈치면서 KBO 시상식에 참가했다.

박찬호는 “2019년에는 꿈만 같았다. 너무 도루왕이 하고 싶었고, 언제 시상대에 올라가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한번 시상식도 가보고 지금은 덤덤하다”고 웃었다.

덤덤하다고 웃었지만 박찬호는 의미 있는 순간 도루를 만들어내면서 1위 자리에 올랐다.

40도루를 채웠던 롯데전에서 아쉬운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박찬호는 발로 뛰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팀의 승리를 불렀다. 2, 3루 도루를 연달아 성공시킨 4일에도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도루였다.

박찬호는 “2019년에는 팀이 지는 상황, 점수 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많이 뛰었는데 올 시즌에는 팽팽할 때도 뛰고 더 알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출루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루 기회도 많아졌고, 나성범이 버티면서 중심타선의 힘도 좋아진 만큼 더 부지런히 뛰었다.

박찬호는 “중심 타선이 좋아서 상대가 변화구를 많이 쓰면서 도루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팀 유일의 타이틀 홀더가 됐지만 나성범과 함께 시상식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 9월 중순 나성범이 타점왕 경쟁에 가세했지만 막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타이틀’은 획득하지 못한 전망이다.

두 차례 골든글러브는 들어 올렸지만 1위 기록이 없는 만큼 나성범의 올 시즌 목표 중 하나는 ‘타이틀’이었다.

박찬호도 “앞에서 내가 부지런히 뛰면서 성범이 형의 타점에 역할을 하겠다. 꼭 같이 시상식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두 선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박찬호는 “찬스는 많았는데 성범이 형이 혼자 쫓겼던 것 같다. 나도 페이스가 좋지 않아서 (타순이) 내려왔는데 대신 지혁이 형이 잘 살아나갔다. 성범이 형이 부진을 인정했다”고 웃었다.

예쁜 말도 얻은 만큼 시상대에서 할 말도 많아진 박찬호가 두 번째 KBO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12일 시작한다

와일드카드 1차전 4위 팀 홈구장

KBO의 가을 잔치가 12일 시작된다.

KBO가 6일 포스트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12일 와일드카드 1차전을 시작으로 가을 무대가 열린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정규시즌 4위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4위 팀이 두 경기 중 한 경기에서 승리 또는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5위 팀은 무조건 2승을 해야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각 시리즈 사이 최소 1일은 이동일로 한다.

포스트시즌 경기는 평일에는 오후 6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열리지 못하면 다음 날로 순연된다.

연장전은 최대 15회까지 진행되며, 15회가 종료된 후에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 무승부가 된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며, 해당 경기는 시리즈별 최종전이 끝난 후 무승부가 발생했던 구장에서 이동 없이 연전으로 진행된다. 한 시리즈에서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오면 하루의 이동일을 두고 연전으로 대결한다.

비디오 판독은 정규이닝 기준 한 팀당 2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규이닝에서 2번 모두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해당 구단에 1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전이 진행되면 구단당 1번의 기회가 부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EPL 통산 97호골 도전

9일 새벽 브라이턴 원정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97호골로 에마뉴엘 아데바요르(세마시)를 넘어라!’

손흥민(30)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가 9일 새벽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팔머스타디움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2022-2023 EPL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8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서 시즌 개막부터 이어진 골 침묵을 헤트트릭으로 시원하게 깬다. 아울러 EPL 통산 96호 골을 신고해 이 부문 랭킹에서 35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득점 행진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주춤해졌다.

아스널과 복련던 터너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토트넘은 1-3으로 졌다.

이어진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0-0 무)에서도 손흥민은 득점하지 못했다. 다시 길어질 수 있는 골 침묵을 이번엔 깨야 한다.

손흥민의 97호골에는 2000년대를 품미한 스트라이커 아데바요르를 넘는다는 의미도 있다.

아데바요르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토트넘 등 여러 팀에서 뛰며 EPL 97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이번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면 기간 걸려왔던 팀 중 하나인 브라이턴을 상대로 10경기 만에 골을 넣는다는 의미도 있다.

손흥민은 브라이턴을 상대로 리그 9경기,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컵 1경기를 뛰었는데, 그중 첫 경기인 2017-2018시즌 17라운드에서 득점한 뒤로는 한 번도 상대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황희찬(26)의 소속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는 8일 밤 11시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여 2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올 시즌 팀 내 입지가 좁아졌다. 주로 교체로 출전하던 9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부상으로 아예 결장했다. 여기에 황희찬을 울버햄프턴으로 불러들인 브루누 라즈 감독이 경질돼 앞날이 더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황희찬이 어떻게 운명을 개척해 나갈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과 한국 축구팬들이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 임성재, PGA 개막전이 타이틀 방어전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출전  
김주형 'PGA 투어 풀타임' 시작

2022-2023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일정을 타이틀 방어로 시작하는 임성재(24)가 좋은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성재는 6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리는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을 앞두고 현지 인터뷰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쁘다. 이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임성재가 2022-2023시즌 개막 이후 처음 출전하는 PGA 투어 대회다. 특히 지난해 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대회라 타이틀 방어전이기도 하다.

이 대회 우승을 비롯해 지난 시즌 선전을 이어가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이 가을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즌 초반부터 잘해서 페덱스컵 포인트를 미리 많이 따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엔 김주형(20)도 출전, PGA 투어 첫 ‘풀타임 시즌’을 시작한다.

김주형은 지난 시즌 초청 선수 등의 자격으로 나온 PGA 투어 대회에서 성적을 쌓아 ‘특별 임시 회원’이 됐고, 8월 원정 챔피언십에선 우승을 차지하며 정식으로 입성했다. 이를 비롯해 2021-2022시즌 후반부의 가파른 상승세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고, 신인왕 후보에도 오른 그는 프레지던츠컵에서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주형은 “프레지던츠컵은 너무 큰 대회고, 굉장한 한 주였다. 즐거운 추억만 남았고, 무척 행복하다”며 “좋은 경험을 했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 “풍성해요”... 광주FC 9일 홈 폐막전

경남FC와 K리그2 43라운드  
최다승 기록 경신·경품도 푸짐

광주FC가 풍성한 홈 폐막전을 맞는다.

광주가 오는 9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FC와 K리그2 4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이자, 우승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축제의 무대다.

4경기를 남겨두고 최단기간 우승을 확정했던 광주는 앞선 안산전 3-0승리, 대전전 2-2 무승부를 통해 역대 최다승점 기록을 '82'로 갈아치웠다.

하지만 광주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홈폐막전에서 K리그2 최다승 기록 경신을 노린다.

기존 기록은 2017년 경남FC가 작성한 24승. 앞선 대전전 무승부로 광주는 올 시즌 24승 10무 4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남을 넘어 새로운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홈폐막전 승리를 장식한다면 K리그2 최다승과 홈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가 장식된다. 또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우승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만큼 선수단은 승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화끈한 공세로 경남 골문을 겨냥하고 있다. 산드로에 눈길이 쏠린다. 7월에 광주에 합류한 산드로는 6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조기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공격수만 골을 넣는 것도 아니다. 두현석이 대전전에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고 이상

기도 극장골로 무승부를 장식하는 등 측면 수비진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론과 안영규, 박한빈 등 중앙 수비진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광주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헤이스와 두현석이 경고누적으로 결정하지만 마이카와 하승운, 이상기, 정호현 등이 출격 준비를 끝냈다.

홈폐막전 상대인 경남은 15승 8무 15패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리그 득점 선두인 티아고(18골)를 비롯해 고경민, 황일수, 모재현 등이 매서운 공격을 펼치면서 리그 최다득점 3위(59득점)를 기록 중이다.

상대점적에서는 2승 2무 5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도 1승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광주는 지난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남에 1-4 패배를 기록했었다.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홈팬들과 하는 마지막 경기를 위해 푸짐한 경품도 준비했다.

이정효 감독과 주장 안영규가 '승격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맥북 2대, 커피 1500잔과 팝콘 2000개를 준비했다.

또 LG올레드 TV(55인치), 삼성 에어드레서, LG퓨리케어 공기정정기 등 하프타임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홈폐막전 직관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선수단 애장품 증정도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